

대학평의원회 제15-3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년 12월 9일(화) 18시
- 회의장소 : 호서대학교 본관 205호 대학평의원회 회의실
- 의원 출결사항 :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의원	11명	박윤철(의장), 유영근(부의장), 장원경, 이준호, 장도현, 허판덕, 이한식, 정해천, 임현수, 이정팔, 류지혁
불참의원	0명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의장이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선포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류지혁 의원 성원 보고후 참석)

2. '15-2차 회의 결과 보고

1)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 개정(안) 심의 : 원안대로 통과

○ 개정내용

-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 명칭 변경 반영
- 조직 폐지 및 명칭 변경 반영
- 공학인증평가 단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납부 기준 현실화
- 수업료 반환 기준일 명확화
- 수강신청 가능 학점 명확화
- 사회봉사 인정 범위 확대

2)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 원안대로 통과

3) 대학주요현안 보고

-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 학사구조개혁 추진 보고

류지혁

유영근

이정팔

3. 안건상징

- 가.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 개정(안) 심의
- 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 다. 대학주요현안 보고
 - 당진 산업단지캠퍼스 설립 추진 경과 보고
 - 교육부 국책사업 추진현황 및 학부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
- 라. 기타 주요사항

4. 회의내용

가. 학칙 개정(안)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대학원교학팀장이 배포된 자료로 설명하다.)

[첨부자료 1]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 개정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원안 심의에 대해 유영근 의원의 동의와 이정팔 의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묻고 일동 "가"함으로 원안대로 심의함)

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건

(제2안건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건에 대하여 의장이 배포된 자료로 설명하다.)

[첨부자료 2]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건

박윤철 의장: 학교법인 호서학원으로부터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2배수를 추천하여 달라고 문서로 요청받았습니다. 평의원회에서 한분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하는데 간사의 설명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간사: 현재 학교법인 호서학원의 이사정원은 8명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명이 개방이사

박윤철

유영근

이정팔

정수이며, 2명의 개방이사 임기만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평의회에서 1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한식 의원: 과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정해천 의원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합니다
- 장원경 의원: 2년전 개방감사추천위원회 구성시에는 당시 평의회 의장님이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대학을 대표해서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본 취지를 고려해서 추천위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 이정팔 의원: 대학평의회를 대표하여 의장님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합니다.
- 임현수 의원: 동의합니다.
- 정해천 의원: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사의를 표명하며 의장님 추천에 동의합니다.
- 박윤철 의원: (박윤철 의장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건에 대해 의장이 가부를 묻고 일동 "가"함으로 박윤철 의원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

다. 대학 주요현안 보고

(대학주요현안 보고로 당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교육부주관 국책사업(PRIME, CORE), 2017학년도 학부구조개혁 추진방안에 대하여 한상태 기획처장이 배포된 자료로 설명하다.)

[첨부자료 3]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첨부자료 4] 교육부 국책사업 추진현황 및 학부구조개혁 추진방안

- 박윤철 의장: 당진 산업단지캠퍼스 설립 관련하여 지난 평의회에서도 추진경과를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일 자료를 보면 예산 120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당진캠퍼스 조성사업이 대학의 주요한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예산변동등 사업추진 변경사항 발생시 구성원의 사전 의견수렴을 통하여야 하는데 설명회 등의 절차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변경

리판석

유영민 이관수

및 정책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기획팀장: 기존 사업계획서에는 당진 산업단지캠퍼스내 생활관을 행복기숙사 방식으로 건축하고자 하였는데, 당진캠퍼스 이동학과가 4개학과에서 3개 학과로 변경되고, 정원이동도 48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행복기숙사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교비재원 건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대학의 기숙사수용률이 15.8%로 전국대학 평균이하 수준으로 유학생 유치등 아산캠퍼스내 기숙사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진캠퍼스에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 사업은 아산캠퍼스로 대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진캠퍼스 기숙사 신축을 위한 교비재원 120억원을 추가로 사업비에 반영하여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2학기중 교무위원회 자료를 통하여 안내드린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 변경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철 의원: 학교 재정규모를 고려한다면 기숙사 사업비 120억원은 당해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금조달 재원은 무엇입니까?

조대진 기획팀장: 본 기숙사 건축비는 등록금회계 일부와 및 비등록금회계의 건축기금을 을 주 재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윤철 의장: 기금 재원도 교비회계의 일부분이며,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당진캠퍼스 기숙사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구성원들에게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 대학의 주요정책 추진시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사전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확보해 주시기길 요청드립니다.

이준호 의원: 행복기숙사 사업방식은 총 사업비의 90%를 공공기금 차입을 통해서 추진하고 향후 30년간 기숙사 운영을 통해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 이라고 하였는데, 기숙사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는지요?

조대진 기획팀장: 행복기숙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건축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으며, 학생이 입주하는 시점에는 기존 기숙사의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을

하판역

유영은 이근우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으며 사업추진에 대해서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받았 습니다.

정해천 의원: 기숙사 정책은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 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학생들 의 여러 정주여건중 더 좋은 시설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차등해서 비용 을 부담하게 하는 정책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숙사 정책도 위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원경 의원: 당진과 아산캠퍼스간의 행복기숙사 변경 추진건은 규모와 공공자금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아산캠퍼스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학 의 판단이 옳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의장님 지적대로 추진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이해와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 급하며, 기숙사 문제뿐만 아니라 당진캠퍼스 학생모집부터 학사운영 전 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원경 의원: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시 일부 분야에서 우리대학의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주기 평가 사전대응을 위해서 평가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할텐데 대학의 철저한 1주기 평 가 분석과 2주기 평가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한상태 기획처장 1주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대학의 취약 한 부문은 현재 전략을 수립하여 더욱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대응을 위 해서 평가지표 확정을 기획처장협의회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원경 의원: 정성평가 항목이 계량된 지표로 명확히 평가가 되지 않으므로 사업단 평가위원의 주관성 개입이 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평가단이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학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의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평 가원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에서도 지표개선 을 위해 정원감축에 따른 전임교원확보율의 자인증가 등 여러 가지 변 수를 고려하여 지표관리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학평가를 위해

하진영

유영근 이근우

효율적인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평가에 대응한 대학의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과단위에서도 교수님과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구성원들에게 대학의 상황과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호 의원: 정성평가를 위해서도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성원들의 참여의지가 없으면 성과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상태 기획처장: 대학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 수립과 예산집행시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구성원들과 주요 과제들을 공유하여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도현 의원: 대외적으로 대학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대학평가를 통하여 대학등급을 판정하는 상황에서 대학본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획처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협력하여 대학평가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윤철 의장: 대학평가결과에 대하여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진행방안에 대한 구성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전체교수회의 시간등을 통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개혁평가 뿐만 아니라 언론사 평가등 각종 평가등급 상향을 위한 다각적인 대학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의 정량, 정성지표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처에서 차기 평의원회의에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류지혁 의원: 구조개혁평가가 지표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중심이 학생이 아니라 지표향상이 정책 최우선 순위가 되어, 오히려 학생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한상태 기획처장: 주요 평가지표가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비 환원율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결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학생의 수업 환경을 위한 지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사관리 지표 및 장학금등 학생지원 지표 또한 학생 교

하성우

유영은 이경자

육 증진을 위한 지표입니다.

류지혁 의원: 학과구조강화 정책 추진 관련해서 교육부 정책에 따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학과통폐합시 우선적으로 모든 정책내용이 해당학과 학생에게 사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학과구조조정예 따라 학생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판덕 의원: 학과구조조정시 주관하는 대학본부에서도 투명하게 합리적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해당 단과대 및 학과에서도 본부와 진행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학생의 의견을 대학측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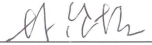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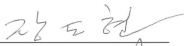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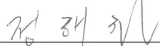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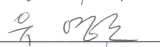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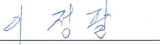
한상태 기획처장: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대학의 주요 사업추진시 구성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평가 및 학과구조조정시에도 오늘 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기타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는지 묻고, 없음으로 폐회 동의를 물음. 동의와 재청으로 가부를 묻고 일동 "가"함으로 폐회를 선언함)

위 의결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의원이 서명 날인하며 하판덕 의원, 이한식 의원, 유영근 의원을 대표로 선임하여 간서명 할 것을 의장이 요청하다.

상기 기재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2015년 12월 9일

의장 박윤철		의원 이춘호	
의원 장도현		의원 하판덕	
의원 정해천		의원 이한식	
의원 유영근		의원 임현수	
의원 이정팔		의원 류지혁	